

월간 증현

'80 1월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현대의 시대성을 한 마디로 특징짓는다면 “경쟁의 시대” 혹은 “투쟁의 시대” 또는 “싸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역사상 오늘날처럼 민족과 민족의 싸움, 국가와 국가간의 전쟁, 이념과 이념의 투쟁등이 극악상태로 계속되었던 때도 없었을 것이다. 요즘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는 이란사태, 아프리카사태, 중동문제, 석유분쟁, 미·소간의 투쟁등은 현대 시대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예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적 존재인 인간은 자기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갓난아기 시절에는 먹겠다고 울면서 투쟁하고, 어린아이 때에는 더 많이,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갖겠다고 투쟁하고,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시험을 비롯한 수많은 시험속에서 경쟁해야 하고, 사회로 진출하면서 취직시험, 진급시험, 자격시험등 수많은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싸워야 하고, 그리고 좀 더 쉽게, 좀 더 잘 살아보려는 욕망때문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람은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야만 한다. 때와 환경을 의식하고, 자신의 지위를 생각하고, 사회와 국가와 민족과 자기가 소속된 단체의 이익과 덕을 위하고, 역사와 문화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의 인격성장을 위하여 사람들은 사람답게 살려고 항상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살아가고 있다. 더우기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투쟁을 하면서 살아야만 한다. 우리 속에서 솟구치는 죄악된 욕구와 외부에서 도전해 오는 수 많은 사단의 유혹 및 시험들과 싸우면서 살지 않으면 안된다. 이토록 인간은 자신과 싸우고, 타인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인생 일생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싸움의 시대” 속에서 얼마나 승리하면서 살아갈 자신이 있는가? 성도는 자신의 뜻과 의지와 지혜와 지식과 기타 요소로써는 일시적인 승리도 얻기 어려울 뿐 아니라, 궁극적인 승리는 생각조차 할 수 없

다. 오늘의 세계속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며 살아가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남에게는 손해를 끼치고, 자신은 실패의 서러움으로 지쳐버린 인생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쟁터에서 일생을 보냈던 여호수아는 그의 생애 말년에 자기의 일생을 돌이켜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적 교훈을 남기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 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중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수 23 : 3 - 11)

바로 이 교훈이 “경쟁의 시대”, “투쟁의 시대” “싸움의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오늘의 성도들이 백전백승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이 싸움의 시대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다. 싸움은 하나님께서 하신다. 우리는 오직 여호와와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만 친근히 하는 것뿐이다. 그리하면 우리는 1당 1,000의 승리를 누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1980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했다. 올해도 이 계획과 포부를 성취하려면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워야 할 것이다. 그러나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시 31 : 15) 오직 여호와와의 말씀만 다 지켜 행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친근히 하기를 힘쓰자. 필경 80년대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리라. (*) (주 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충현교회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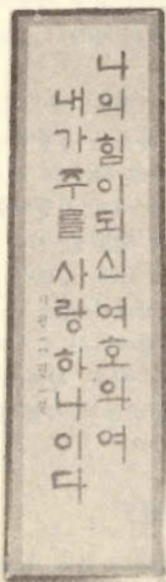
우리는 전통적 개혁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과 대소 요리문답을 우리의 신조로하여 신앙 생활을 확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목표를 둔다.

1. 말씀을 파수하는 교회가 된다.
2. 전국일꾼을 키우는 교회가 된다.
3. 민족과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된다.

제 8 권 제 1 호

통권 73호

월간 충현



— 1 월호 차례 —

권 두 언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주 간 · 2
이달의말씀	뜻대를 향해 쫓아 감시다.	김창인 · 4
	1980년의 충현교회	편집실 · 8
지 상 특 각	현대의 바람직한 지도자상	김희보 · 10
편집실칼럼	더 가까이	오태용 · 16
찬송가감상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310)	김하진 · 16
도 서 정 보	도서실 소식	도서실 · 17
책 소 개	7 가지 교육법칙	이승근 · 17
기독교윤리	생활속의 윤리 (2)	김하진 · 18
독 자 의 글	은혜로운 만남	황승은 · 21
독 자 의 글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 상	한정배 · 22
새해의기원	번 그릇을 공물로 채우소서	홍지향 · 7
새해의기원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한해가	한정미 · 20
새해의기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유재일 · 23
선 교 월 보	선교지 소식	선교회 · 24
구 역 소 식	새 교우 · 결혼 · 별세자 명단	편집실 · 26
주간의만나	시편 65편	김창인 · 28
교 회 소 식		편집실 · 29
주 교 소 식		교육위원회 · 32
화 보	1980년도 충현교회 당회원	편집실 · 35
이달의행사	1월의 행사	편집실 · 34
편 집 후 기		편집실 · 34
실로암후기		편집실 · 36

표지설명 / 1980년을 맞으며 더욱 큰 일을 앞에 놓고 있는 우리 교회와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모습.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꽃대를 향하여 쫓아 잡시다

〈빌 3 : 3 - 21〉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오늘 1980년 정월 초하룻날 다른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신년예배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들의 1년 예산편성 및 계획서를 내놓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금년에는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개인, 가정, 교회, 민족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꽃대를 향하여 쫓아 잡시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땅위에 사는 43억이 넘는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저는 7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영적 환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힘이 없고 악을 끊을 힘이 없고 죄악이 습관이 되어 죄에 결박당해 영적 자유를 빼앗기고, 남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영적 환자가 땅위에 많이 있습니다.

둘째는 영적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만이 잘난 줄 아는 교만쟁이, 양심의 등불을 꺼뜨린 소경,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면 남의 가슴에 모닥불을 안기워 주기만 합니다. 꼭 행하여야 할 선은 업신여기고 꼭 버려야 할 죄는 웃으면서 환영하는 영적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세째는 영적 바보들이 있습니다. 이는 미친 사람도 아니고 환자도 아닌 것 같으나 선인지 악인지, 내 책임인지 아닌지, 이게 오늘 할 일인지 아닌지 아무런 분별을 못하고 그저 자기는 편안히 누워서 자기만 하면 그만인 줄 아는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영적 바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째는 방향없이 덩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 가는지도 모르고 그저 엉뚱 점병 덩비기만 합니다. 가기는 가는데 방향이 없어 오늘은 서로 갔다가 내일은 동으로 갔다가 그 다음 날에는 남으로 갔다가 또 북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 제자

리 걸음이고 한 걸음도 진보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섯째는 가만히 누워서 생각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해서 나쁜 것은 끊고 좋은 것은 행해야지 생각은 잘 해 놔는데 이불속에 묻혀서 일어날 줄을 모르고 생각만 하는 동안에 기회를 다 놓쳐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섯째는 말로만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불은 막차고 일어나 앉아서 입을 열어서 자기의 생각한 것을 발표합니다. 이진 옳고 이진 나쁘고 이것은 꼭 행해야 되고 이것은 천천히 해도 되고 발표는 똑똑히 했는데 자기는 앉아 있고 일어날 줄은 몰라 말로는 선한 일을 일등으로 잘 하는데 땀을 흘리는 실천은 없어, 말로는 의인이 되고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됐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일곱째는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깨어 일어나서 선한 계획을 세우고 확실한 목표를 정하고 옷을 입고 허리띠를 조여 매고 신들매를 하고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향하여 달음질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칠까봐 겁을 내면서 쫓아가는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쫓아 간다는 말은 죽은 사람이 아니고 산 사람이라는 증거이고 일어나서 무엇인가 쫓아 간다는 말은 환자가 아니고 건강하다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I. 무엇을 쫓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쫓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되 무엇을 쫓아갈 것인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



아 같 것인가를 생각하기 이전에 좇아 가서는 안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돈만 좇아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돈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도, 민족도, 나라도, 하나님도 다 제쳐놓고 돈만 따라 가는 사람은 안돼야겠다는 말입니다. 둘째로는 권세만 따라 가는 사람이 되면 안됩니다. 일본 시대에는 일본 사람의 색깔과 꼭 같다가 공산당 시대에는 공산당과 꼭 같아지는 변색을 잘 해서 시국을 따라 변하는, 즉 권세를 따라 변하는 간사한 사람이 돼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세째는 너무나 유행을 잘 따라 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됩니다. 전연 유행을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유행을 너무 앞서 따라가면 사치하게 되고 너무 따라가지 않으면 고집쟁이가 됩니다. 너무 앞서서 사치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영육간에 손해 넘어드립니다.

이처럼 땅위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무엇을 따라가는지 몰라 이것 저것들을 따라 잡니다. 이제 우리 예수 믿어 하늘나라의 시민증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신자들, 우리 충청교회의 성도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따라 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봉독한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좇아 가야 할 4가지 목표가 잘 나와 있습니다.

1. 의인으로 취급 받아야 합니다.

땅 위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의인이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날의 죄가 너무 흉악하고 크고 더럽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든 씻어 버릴 만한 것물이 없고 비눗물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여 너희 죄가 비록 진홍 같을찌라도 내게 나와 의논하자. 내가 너희를 양털처럼 희게 씻어 주마 하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옳다 인정받는 칭의적 의인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죄를 완전히 끊고 의인이 되겠느냐 이것보다 용서받고 의인 취급 받는 의인이 첫째 목표입니다.

2. 말과 행동에 의인의 열매를 맺도록 성령님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앞에 선을 행하며 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자라나는데 지금까지 죄를 범하던 습관이 남아 있어 또 넘어져 허물과 죄투성이가 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내가 의를 행할 마음이 80%쯤 자라 악을 행할 마음 조금 남은 것을 이기고 행동이 말과 함께 성령의 열매 맺는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목표가 되어야겠습니다.

3. 말과 행동에 성공하는 열매를 맺는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공자, 나와 관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랑감이 되고 은혜를 나누어 주는 성공자, 그리고 오고 오는 후세대 사람에게 복을 물려줄 수 있는 성공자, 이런 성공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영광스러운 말이지만은 땀과 눈물이 쏟아진 다음에야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겁니다. 죄를 이기고 악마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어떠한 고생도 각오하고 후회를 모르고 전진하는 이 실력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성공합니다.

4. 언제 하나님이 부르셔도 승리의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 내 생명이 하나님의 부름을 입어서 떠날는지 모르고 언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실지 모르는데 언제 예수님이 오시든지, 언제 내 생명이 떠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보고서를 바치면 너 잘 했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아 쓸 수 있는 보고서를 낼 수 있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처럼 4가지 목표를 정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그리스도로 옷입고 인내의 견심의 허리띠를 동여매고 예비한 복음의 신을 단단히 신들메에 신고 앞을 향하여 전진하는 80년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II. 어떻게 쫓아 가야 합니까.

목표를 정한 다음 우리는 어떻게 쫓아 가야 합니까.

1. 뒤에 있는 것을 잊어 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잊어 버리라는 말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의 잘한 것, 헌금 많이 바치고, 전도 많이 하고, 구제사업 잘 하고, 성경 많이 보고 한 것들을 잊어 버리자는 말입니다. 왜 과거에 잘한 것 가지고 오늘 내어 놓고 자랑하느냐 말입니다. 지난날에 것을 자랑하느라고 앞으로 가지 못하고 있더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잘한 것 자랑하느라고 이 사람보고 자랑하고 저 사람보고 자랑하느라고 앞으로 가는 걸음 멈추지 마시다.

둘째로 과거에 잘못하고 있던 일에 계속 머물러 있어 세상 낙을 바라지 말고 세상 낙을 잊어 버려야 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이 많은데 인간적으로 볼 때 그것 때문에 잘 살았거든요. 그러니 그것을 끊기가 싫어, 끊기는 끊어야겠는데 끊었다가는 밥줄이 끊어지고 재미가 없고 할 것 같으니까 그냥 오늘에 머물러 있던 말입니다. 오늘의 잘못 된 재미와 이익 때문에 과거의 죄사실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세는 과거에 너무나 많은 잘못을 행해서 자포자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옥 갈거다. 내가 예배당에 나가면 저런 못된 것이 예배당에 왔구나 그럴게다 아예 그만두자. 스스로 낙심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죄인이라도 자기의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내가 과거에 무슨 죄를 다 범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지 않지 말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전부 용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용서 받지 못 할 죄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것 뿐입니다.

2. 미래를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나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선생님을 따라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서 가나안 복지를 건너다 봅니다. 건너 가기는 가야 할텐데 소문을 들으니 가나안 7 족속은 키가 크고 몸이 크고 그들이 사는 동네는 높은 성으로 두르고 그들은 새로 만든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는데 우리는 맨손 들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한 마디만 듣고 가야 하니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모세선생님은 그냥 건너가는 것보다 탐정을 미리 보내서 그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하기로 합

니다. 미리 겁이 생겼습니다. 신자는 미래에 대한 겁을 가지면 안됩니다.

아무데 아무데 겁낼 것 없네

아무데나 예수 함께 가려네

이렇게 겁을 내던 그들은 인간적으로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것 같았으나 광야에서 40년동안 다 망하고 어린이들만이 자라서 여호수아 장군을 따라 겁없이 들어 갈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한국의 백성들이여! 충현의 성도들이여! 앞에 무슨 일이 있어도 겁내지 마시다. 앞에 요단강물이 언덕을 넘어도, 여리고성이 하늘에 닿아도, 가나안 7 족속 원수가 사자같이 용맹스러워도, 대장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앞으로 앞으로 가잔 말입니다.

과거에 머물면 끝난 사람이고 원수가 무서워 발걸음을 못 움직이면 역시 끝난 사람입니다. 쫓아 가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III.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미래에 겁을 갖지 말고 오늘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신랑되신 예수님을 쫓아 가야 되겠습니다. 신랑되고, 대장되신 예수님을 쫓아 어디든지 따라 감시다.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 가는 걸음은 숨이 참니다. 힘이 들고, 발이 아프고 배가 고플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따라 가면 우리 앞에는 승리가 기다립니다.

왜? 예수님은 진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이길만한 악마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는 분이십니다. 신랑 예수님만 따라가면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대장되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영원히 우리는 승리가 됩니다. 의로우신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는 천국 시민권에 패물하지 않습니다.

80년대의 이 10년은 우리의 개인 형편으로 보나 가정으로 보든지 교회로 보든지 민족으로 보든지 앉아 있다가는 그대로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쫓아 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후진국인 것만큼 선진국을 향하여 뒤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따라 가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어디까지 쉬지 않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충현교회가 다섯가지 큰 일을 하나님앞에 받았읍니다.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도 예수님을 쫓아 갈 때 이루어 지는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공상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일도 예수님을 쫓아서 달음박질 처야만 이루어 지는 일입니다. 민족

복음화도, 세계 선교 사업도, 북한선교도 모두가 예수님을 따라 달음질 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 이루어 질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만 따라 과거는 잊어 버리고 미래는 겁내지 말고 현재에는 있는 힘을 몽땅 바쳐서 최선의 충성을 다 합시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물론 이것은 당장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가면 당장에 승리가 있고, 자유가 있고 성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고생이 기다리고, 역울한 누명을 쓸 때가 있지만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가 있습니다. 요셉의 승리, 다윗의 승리, 누가 감히 부인할 수 있습니까.

순산을 향해 가는 성도들이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지난 날 잘한 것 지나치게 선전하느라고 앞으로 향

한 발걸음 머뭇거리면 큰일납니다. 과거에 죄지으며 재미 있던 일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머물러 있으면 안됩니다. 과거에 잘못된 일에 낙심하지도 말고 회개하여 이제는 앞날의 무서운 일, 험한 일, 괴로운 일, 큰 일 겁내지 말고 내게 있는 정성만 쏟아 놓으면, 우리의 가진 것 딱 다섯덩이, 물고기 두마리만 바쳐 놓으면 하나님은 오천명 먹일 것을 준비하십니다. 개미는 개미의 힘, 소는 소의 힘, 내 힘껏 바치란 말입니다.

충현의 만여 성도들은 누워 있는 사람도 없고 앉아 있는 사람도 없고 한결같이 일어 서서 예수님을 따라 갑시다. 예수님만 따라 가서 내가 먼저 의인되기를 원하고 내가 성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내가 어느 시간에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보고서를 바치기를 원하면서 예수님만 따라 가면 이 모든 일이 성공이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개인의 영육간에 남들에게 줄 것이 있는 여유 있는 성공자의 평안을 누리시다가 예수님 오시는 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시는 날 '너 잘 했다' 칭찬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후손들은 복받는 80년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 새해의 기원 *

빈 그릇에 공홀로 채우소서

홍 지 향 (초등부교사)

사랑의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과거로 또 다시 한 해를 보냈지만 보내는 마음보다 맞이하는 마음이 더욱 벅차 옵니다. 경신년의 시작은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사 이 작은 자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를 먼저 묵상하게 하시고 당신의 나라를 위하여 계획된 목표는 그 가운데 역사하는 여호와를 만남으로 끝나게 하셔서 승리의 개선가로 영광돌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지진이나 폭풍이나 불꽃 가운데서 아니라 기도하는 중에 가장 잘 들리는 줄 아오니 여기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할 빈 그릇을 보시고 공홀을 배부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겠다 허락하시기까지는 확고한 신앙과 참된 겸손과 굳건한 인내로 알뜰히 준비를 갖추겠사오니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해 줄 이도 사랑해 줄 이도 없는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모인 작은모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발전시켜 주시고 그 영혼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절코 잊혀지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르치는 직분을 주셨사오니 연약함과 무지를 아시는 주님, 지도해 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주옵소서. 철없는 그들의 질문과 요구가 나를 못견디게 괴롭힐지라도 내 고집대로 그들을 구속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몸소 응답하신 그 사랑으로 인내하게 하셔서 거절어지려는 감정이 솟구칠 때 마다 잠재워 주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비웃는 우리 가족들을 공홀히 여기셔서 그들의 마음에도 불변의 진리가 순진한 어린이와 같이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은총을 내리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의 찬미를 들은 귀로 불평이나 논쟁 따위를 듣지 말게 하시고, 찬양한 입술로는 진리만을 말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갯새마네로 올라가는 믿음의 발걸음은 부당한 의심속에 다시스로 내려가는 요나의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저에게 너무나 부족한 것들이 많사오니 특별히 용납할 수 없었던 근원들이 십자가의 사랑의 열로 녹여지게 하셔서 올해를 마무리 지으며 주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는 완숙한 인격의 열매를 가득 드리게 하옵소서.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린 기도를 주님의 지혜에 맡기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 당회장 김창인목사에게서 듣는다.

1980년의 충현교회

세계를 한 가족으로

1980년도를 맞으며 욥기23장10-12절 말씀가운데서 우리의 금년도 목표와 우리의 자세들을 배우기를 원한다.

나그네 인생길에서 우리의 앞날을 알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오직 한분 아시는데바로 하나님이다. 우리는 길을 가면서도 가는 곳을 모르는 소경같은 인생이다. 욥도 말하고 있다. 나의 가는 길은 내가 모른다. 그러나 믿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 정금(精金)처럼 빛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

우리들이 가는 길에는 연단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이 있다. 이 연단이란 말은 군대의 훈련이란 말과도 같다. 그래서 연단을 받다가 쓰러지면 전공(戰功)이 무너진다. 끝까지 연단을 받아야 한다. 나의 길을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교만이고 나의 길을 내가 개척한다고 생각하면 바보의 말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 가는 것이다. 그러면 정금처럼 빛나는 날이 오게 된다. 정금처럼 빛난다는 말은 일꾼다운 일꾼이 된다는 것이다.

먼저 우리는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앞에 놓였는지 모르는 1980년대를 살아 가면서 욥의 겸손, 욥의 믿음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나의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만 믿는다는 이 믿음이 80년대를 살아가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또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니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않았다고 말하는 욥과 같이 우리의 생활의 발걸음이 돈, 권력, 욕심, 인정에 따라가지 말고 교만한 고집도 부리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도 되지 말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만 따라 가는 80년대가 되어야겠다. 갈수록 혼탁하여 저는 이 사회에서 우리들의 사명은 점점 더 중대해지고 있다. 이런 매일수록 우리의 분명한 좌표가 있어야겠다.

또 욥은 말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입의 말씀을 귀히 여

겼다고 했다. 여기서 일정한 양식이란 것은 육신의 생활비 전부를 말한다. 내 생활 전부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귀중한 줄 알고 산다고 그랬다. 어떠한 일이 언제 일어날 지 모르는 이 80년대를 사는 오늘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생활 전부보다도 하나님의 명령을 존중한 줄 아는 자세로 살아야겠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시련이 닥쳐 오더라도 우리는 욥기23장 10-12절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두고 이 80년대를 살아 가자.

우리는 길가는 나그네 인생이므로 내일일을 전혀 모르지만 연단만 바로 받으면 정금처럼 빛나리라는 것을 믿기에 어떤 연단이와도 참고 견딤시다. 그리고 내 발은, 즉 내 생활 전부는 하나님을 똑바로 따라가자. 아무리 우리를 유혹해도 피 흘리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자. 따라가되 중심으로만 따라 가는 것이 아니고 명령대로 따라 가고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 육신의 생활비 전부보다 더 중한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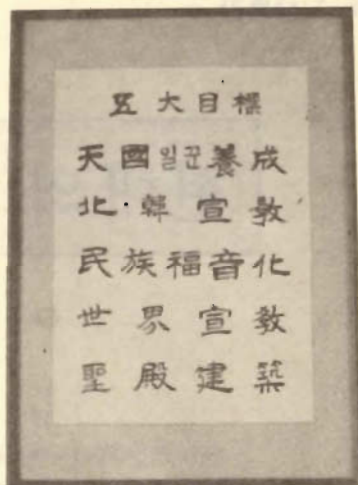
이 말을 한 욥은 그 마지막이 좋았다. 마지막이 가장 좋은 인생을 살자고 이야기 하고프다. 마지막이 나쁘면 중간이 아무리 좋아도 필요가 없다. 곡식은 마지막이 좋아 알곡이 되어 곡간에 들어 가야지 중간에 아무리 푸르고 푸르고 잘 크는 것 가지고는 안된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이 좋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 오실 그 마지막때가 더 좋은 교회로 발전을 해야겠다.

1980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삼으며 이 정신과 이 자세에서 우리가 금년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자. 우리가 늘 기도해 오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5가지 목표가 있다.

1.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이다.

사람을 키우는 법은 자기가 크면서 남을 키울 수 있다. 우리는 모두가 키우는 사람이면서 크는 사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 23: 10-12)



들이 되어야겠다. 금년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15부 주일학교, 성경학원등에서 천국일꾼을 키우는 일에 더욱 힘을 쏟아야겠다. 일꾼을 키운다는 일은 하루에 되는 일이 아니고 또한 1980년만의 목표도 아니다. 우리 교회가 지상에 있는날까지 계속 될 일이다.

2. 새성전 건축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금년에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되겠다. 금년에 목표는 골조공사만 끝내는 계획이고 그후 2년에 걸쳐 내부공사를 끝낼 생각을 하고 있다.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각 가정의 정성껏 힘을 합한다면 가능하리라고 본다. 한 사람도 이 새 성전건축에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되겠다.

3. 민족복음화

우리나라의 통일이 무력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 만일 투표로 남북 통일문제가 거론 된다면 금년까지 1,000만명 교인 확보를 하고 84년까지 2,000만 교인을 확보해야 염려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이것을 목표로 금년 여의도에서 80년민족복음화 대회를 갖게 된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아낌없이 해야겠다.

4. 세계선교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열분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한 것은 잘 알고 있는 일이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업으로 안다. 바라건대는 우리 교회가 백분의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재정이 확보되었으면 좋겠다. 이 세계선교는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인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있어야겠다.

5. 북한선교

가장 어려운 일이다. 지금까지 음으로 양으로 이 일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이 일을 할 것이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어야 겠다.

이 다섯가지 목표의 성공을 위해 정리해야 할 것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째 개인주의가 정리되어야 한다.

나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거나 나 하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지장이 있으면 나는 필요없는 인생인 줄 알아야 한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교역자를 해외로 내 보내서 전문을 넓힐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국에 나간 사람들이 자신의 이유를 붙여서 돌아 오는 약속을 안 지키면 교회에서 신용이 없어지고 계속해서 커야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는 길이 된다.

우리는 개인의 욕심과 이익을 떠나야 5대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는 개교회주의를 떠나야 한다.

이것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에 큰 손해가 된다.

셋째로 내 민족주의도 떠나야 한다.

우리가 6.25때 유우엔이 도와 주지 않았으면 큰일났다. 이제는 내 민족만 생각하는 것에서도 떠나야 한다.

이처럼 개인주의, 개 교회주의, 내 민족주의를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 영광주의, 영혼 건지는 목적, 후손들을 위해 길을 열어 주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겠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선교지를 세계로 잡고 세계를 한 가족으로 생각하고 일해야겠다. 우리의 시야를 우리의 시선을 넓혀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키워야 겠다고 생각한다.

현대의 바람직한 지도자상

김 희 보 목사

(충신대 학장)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아를 섬겼더라. 여호와와 종 노비 아들 여호수아가 일백십세에 죽으매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에 브라임산지 가아산 북 디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 2 : 6-10)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중 우리가 조심해서 살펴 볼 곳이 두군데 있습니다. 7절 뒷부분에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라는 말씀과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는 두개의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주의깊게 살펴 보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 있는 동안, 즉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을 아는 사람들이 살아 있는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는데 그 사람들이 죽은 후에 그 후대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하신 큰 일들도 알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두 세대간에 갭(gap)이 생겼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여호수아나 장로들이 훌륭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훌륭한 것은 당대에 그쳤고 후대에는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후대에게 여호와와의 크신 이쁨도 전해 주지 못했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도 증거해 주지 못했기에 후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사사시대의 도래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큰 암흑시대 입니다. 우리가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없지만 400년간으로 봅니다. 이 400년간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대였고 실패의 날들입니다. 그

래서 사사기를 실패를 기록한 책이라 하여 실패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사시대를 한 마디로 잘 표현한 “모든 사람들이 자기 소전에 좋은대로 하더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다 제 소전에 좋은대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정부시대입니다. 이때에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또 아랍, 다메섹 또 저 남쪽 메소포타미아까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 보면 2년에 한번씩 전쟁을 한 셈입니다. 매우 비참한 시대였습니다.

장로들이 후대들의 교육을 잘 시켜 갭이 없이 여호와와의 종교가 즉 계속되어 내려 왔다면 비참한 일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내는 좋은 결과가 나왔겠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자기 책임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을 잘못시켜서 갭이 생긴 것입니다. 400년동안의 이스라엘 역사의 갭으로 그후의 이스라엘 역사는 별 볼 것 없는 역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교역자는 물론 장로님들, 중견 집사님들은 마음을 모아서 우리 교회의 흐름에 갭이 생기지 않고 후대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충성케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영화롭게 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생각할 때에 지도자의 사명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느끼게 됩니다.

1. 역사속의 지도자상

지도자에 관해 이야기 할 때 그 시대에 따른 지도자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대를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즉 지도자는 언제나 그 시대속에 지도자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봉건시대에는 영웅이 그 사회, 국가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웅 숭배론까지 나왔습니다. 아직도 나폴레옹을 숭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로 말하면 김유신, 이순신같은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웅이 지도자가 된 봉건시대 이후 개인의 자각이 눈 뜨는 시대인 르네상스시대(문예부흥시대)에는 천재가 지도자 상으로 나타났습니다. 루소와 같은 천재 또 괴테, 셰익스피어같은 천재가 요구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천재들의 사가이론이 역사 변혁에 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후에 나타난 것이 1차대전 이후 독재자들이 등장했습니다. 이 독재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통솔력입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가 아직도 남아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도자라면 먼저 통솔력을 앞세우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히틀러, 뮌헨리니같은 통솔력을 갖춘 지도자들의 독재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한 사람의 영웅과 나라를 바꿀 수가 없고 어떠한 천재가 나와도 어렵고 통솔력이 강한 독재자형도 큰 문제가 있습니다.

2. 민주사회의 지도자상

오늘날에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상은 어떤 것일까요? 또 교회에서 요구되는 지도자상은 어떤 것일까요? 물론 교회 지도자와 국가, 사회지도자와



꼭 같을 수는 없겠지만 같은 시대속에서 호흡하고 생활하고 있기에 많은 공통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교회는 민주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기에 민주주의 사회의 지도자와 비슷한 형태의 지도자가 요구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는 어떤 상을 가져야 할지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1) 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민주사회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밀접한 사회이기에 제일 필요로 하는 것이 덕성입니다. 곧 인격입니다. 이 덕성을 갖추어야 존경받는 지도자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현대사회에서 권모술수가 이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도 권모술수 가지고 안됩니다.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대사회는 피지도자가 주권을 잡고 있어 지도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와 지도받는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덕성을 갖추어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로 보면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교역자나 장로님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허물이 없고 윤리 도덕적인 면에서 깨끗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밖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이를 위해 늘 개인의 자아 문제에 대한 반성과 함께 자기 수양을 계속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민주사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책임감이 있어야 합니다.

막스 웨버는 신정윤리와 책임윤리로 나누었습니다. 무슨일을 행할 때 동기가 순수하고 좋으면 결과가 좋지 않아도 용서를 받는 것을 신정윤리라고 했습니다. 즉 동기가 좋으면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책임윤리는 동기와 아울러 결과까지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적으로 책임을 못지면 도덕적 책임까지도 추궁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결과만 좋으면 동기가 어찌됐든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기업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도적질을 했건, 모략을 했건, 권모술수를 썼건 결과만 좋으면 제일로 압

니다. 이는 돈벌이에는 좋을지 모르나 적어도 공공기관을 이끌어 나가는데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소위 공리주의인 것입니다.

오늘날 지도자는 이 사회를 무시하고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책임윤리의식을 가진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사회를 떠난 개인이 있을 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인간은 이 사회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로 말하면 성도 개개인은 독립된 것이 아니고 한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바로 사회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사회성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회성을 생각할 때에 책임윤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는 자기 변명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언제나 마지막에는 겸손히 책임을 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3) 창의력이 있어야 합니다.

현대는 변동이 심한 사회에서 과거에 1년에 상당한 일들이 1개월간에 이루어집니다. 소위 급변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사람은 이미 지도자의 자격을 잃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새로운 것을 생각하고 개발하고 실험하고 적용하고 하는 부단한 새 창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단한 관찰, 연구, 정보에 대한 바른 파악등 말하자면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창의력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것이 해외여행입니다. 우리 한국 현실로 볼 때는 좀 사치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지도자는 새로운 것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총천교회에서 이제는 세계속의 총천교회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데 이처럼 세계성을 가지려면 세계를 알아야 합니다. 해외에 나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듣고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가에 많은 투자를 해야 하고 이 투자를 아까와 해서 안됩니다. 가능하면 교역자들 또 장로님들이 연간 계획을 짜서 해외 여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해외에 계신 목사님들과 국내에 계신 목사님들과 교환목회를 하면 좋겠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간을 정하고 일년에 한,

두 사람씩 교환목회를 하면 피차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해외에 나가 여행하는 것을 사치로 관망으로 생각하지 말고 전문을 넓히고 실제적인 지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실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문을 넓히는면 이외에도 최신 정보수집에도 해외 여행은 무척 중요합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서 우리의 뒤떨어진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을 깨닫고, 부족도 알고 그러면서 자극도 받고하면 돌아와서 일할 때 자신도 모르게 큰 힘이 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4) 대중의 요구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교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며, 그들의 결점이 무엇이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빨리 빨리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교역자들이 심방을 하면서 각 교인의 가정의 필요를 알아야 합니다. 간단히 예배만 드리고 온다는 목적이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그 가정의 요구와 사정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종합해서 전 교인을 파악하고 문제점들을 구체화하고 필요를 채워 줄 수 있어야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지도자는 온 교회의, 각 기관의 구석 구석까지도 훤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보를 통하여 잘 파악하고 있어야 교인의 요구를 알고 구현화 시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상에서 연구해서 하는 설교도 필요하지만 교인의 요구를 모르면 많은 경우에 교인과는 멀리 떨어진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즉 현실에 적용시킬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대중파악이 안 되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가령 사회를 잘하면 훌륭한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지만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를 하면서도 필요한 것을 계속적으로 메모해 나가는, 그래서 자기가 모르는 구석 구석을 익혀 그것을 나중에 구체화시키도록 애쓰는 사람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정성없이, 연구없

이, 타고난 재능으로 멋있게 넘겨 버리는 그런 지도자는 오늘날에 이미 필요 없는 지도자인 것입니다.

5) 교육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흔히 지도자들에게서 우리는 2 가지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적면이고 또 하나는 선전적면입니다.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선거를 할 때 이 선전의 효과가 얼마나 큰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전의 특징은 바로 현실만 볼 뿐이지 내일은 없는 점입니다. 그래서 선전을 열심히 해서 오늘 인기를 끌고, 오늘 표를 얻어서 투표에 승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사람의 마음을 사로 잡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반면에 교육은 미래지향적입니다. 교육은 오늘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피로와도, 꾀박을 받아도, 별 소득이 없어도 내일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로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희생하는 것이 교육입니다. 오늘의 지도자는 선전 잘 하고 인기전술을 써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내일을 바라 보고 부단히 교육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가령 자기의 이상이 국가의 대통령 이라면 국가의 이상과 이념을 끊임없이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의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어야겠다 정하고 미래를 바라고 꾸준히 교육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에 괴롭고 부담이 많아도 내일을 바라고 교육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의 사회를 볼 때 역겨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경제 제일주의로 나가다 보니 돈 잘 버는 기업가는 우대해도 교육한다고 글이나 쓰고 책이나 보고 하는 사람은 경시하기가 그지없습니다. 해외에 나가려고 해도 무척 어렵습니다. 옛날 로마시대에도 “교육은 종들이 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방나라에서 노예로 데려다가 그 노예들을 교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교육자는 종이나, 사환이라는 것이니

다. 임진왜란때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사람을 잡아가서 천자문, 논어, 맹자를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런 사상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즈음 우리사회가 그렇습니다. 이처럼 물질을 정신보다 높이는 사회는 좋은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교회, 교육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사사기 2장에 있는 말씀이 이를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장로나 여호수아가 똑똑하고 훌륭했지만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에 후대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큰 것입니다. 교회의 기능중에 한 가지가 교육입니다. 구약에서는 전도라는 말보다 가르친다는 말이 더 많이 나옵니다. 앉았을 때나 서 있을 때나 가르치라, 네 자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면서 모든 사람을 모아서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가 전도로만 끝난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며 제자를 모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꼭 잊지 말고 시행해야 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까지 우리는 부단히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6) 앞날을 내다 볼 줄 아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많은 판단을 해야합니다. 이때 올바른 판단, 적절한 시기의 판단등을 하기 위해서는 앞날을 좀 내다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사회처럼 복잡하고 회전이 빠른 시대일수록 앞을 내다보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려면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즉, 역사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역사란 흐르는 물과 같아서 코스가 있어 과거를 잘 아는 사람은 오늘을 잘 알 수 있고 내일을 예언할 수가 있습니다.

옛말에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이란 말이 있듯이 옛날 지식을 잘 알때 새로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즈음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 미래학은 역사학의 한부분입니다. 과거의 역사를 정리해서 미래를 내다 보는 것입니다.

7) 제도, 조직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느 단체를 보면 한 개인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며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런 사람을 유능한 지도자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훌륭한 지도자는 개인이 앞장을 서는 것이 아니고 제도를 앞장 세울 줄 아는 지도자입니다.

구라과사회는 모든 면에서 잘 제도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화란에 다녀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 어떤 때는 대통령이나 총리가 1, 2년 권력이 되도 사회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잘 운영된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교체돼도 별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교체되면 밑바닥까지 전부 이동이 있어야 되는 나라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일 것입니다. 소위 모든 면이 제도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바뀌어도 모든 제도는 그대로 있고 모든 방향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당장 싸움이 일어나고 목사님이 타교회로 가면 교인이 우르르 몰려 가고, 목사님이 사임하면 교회의 모든 면이 바뀌어야 하는 교회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반면에 교역자가 몰려가도 당회가 견고해서 요동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도가 잘 되어 있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개인 행동으로 혼자서 끌어갈려고 하지 말고 제도를 강화시켜야 합니다. 개인이 아무리 훌륭해도 개인은 언제나 뒤로 빠질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이념을 세우고 어떤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가 흔들리지 않고 그 개인이 없어도, 그 지도자가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제도화시킬 줄 아는 지도자가 오늘 절실히 요구됩니다.

3. 지도자의 유형

지도자중에는 몇가지 형태가 있는데 이것을 살펴 보면서 변성한 바를 반성하고 취할 바를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 명령독재형

이는 소위 가부장, 카리스마적인 명령 독재형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지도자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일을 혼자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단체에서 빠지면 그 단체가 무너지기 쉽습니다. 이런 지도자 밑에 있는 부하는 손발이 움직이는 대로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참 바른 부하, 뒤를 이을 부하가 생기기 어렵게 됩니다. 조직이나 제도도 모든 것이 그 지도자의 손과 명령에 달려 있습니다. 그 밑에서 일하는 부하는 이념이 없고 방향감각이 없습니다. 그저 하향식으로 내려오는 명령에 복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또 이와같은 지도자는 자신이 의식적으로 그와같이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 지도자가 훌륭하니 부하들이 존경을 하고 받들게 될 때 자신도 모르게 명령독재형의 지도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끊임없이 자기반성을 해야하고 또 부하들에게도 많은 일을 시켜 교육을 시키고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좀 모자란다고 일일이 자신이 다 해버리면 밑에 사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2) 자유방임형

이 자유방임형은 모든 것을 되가는대로 맡긴다는 것인데 좋게 해석하면 좋을 수 있고 나쁘게 해석하면 나쁘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런 지도자는 무능한 지도자가 되기 쉽습니다. 자유가 좋지만 지도자는 언제나 지도자로서 방향감각을 갖고 목표설정을 하며 그 목표를 향한 각 기관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시정할 바를 시정하고 지향할 바를 지향할 줄 아는 부단한 연구와 예리한 관찰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유방임형의 지도자에게 좋은 점도 있습니다. 각자가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일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좋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제도설정, 그 제도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등을 관찰할 줄 아는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은 참 민주주의의 지도자로 정리가 된 줄 압니다. 이제 민주주의 지도자가 조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생각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앞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개인이 물러나도 그 조직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일을 반드시 해야합니다. 내가 없으면 안된다에서 내가 없어도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하에게 시키는 것보다 자신이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사고방식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 부하에게 권한을 맡겼으면 그 권한을 맡긴 후에 방임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방향설정을 보여주고 일에 대한 평가를 내릴 줄 알아야 합니다.

셋째 부하 훈련에 자기 시간을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을 가르치면서 시간이 걸리고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다시 말아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리고 만족스럽지 못하다 해도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고 일을 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네째 다음 사람에게 자리를 넘겨 주는데 인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하를 잘 양성시켜 놓으면 자신의

위치가 위태롭게 되니 부하양성에 게으른 지도자가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 자리를 넘겨 주어도 되겠고 판단이 되면 서슴없이 자리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도 중임에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경쟁자가 생기면 걱정을 하고 제거할 생각을 한다면 지도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나는 쇠하여야 하겠고 저는 흥하여야 하겠다는 후배를 아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언제든지 자기 자리를 내줄 수 있는 마음과 좋은 경쟁자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언제나 자기 반성에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독재하지나 않는가, 내가 너무 자유방임한 것이 아닌가하고 늘 자기를 반성해 보고 자기 훈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 피차 반성하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이 원고는 1980년도 단기수련회중 1월 3일 「교역자·장로수련회」시 김희보목사의 「지도자론」강의를 녹음, 정리한 글입니다. <편집자>

품질 보장과 신용으로 봉사하는
제일모직 전문 판매점

태 일 라 사

◎ 취급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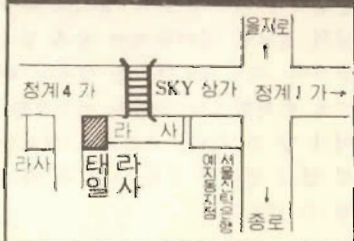
- 고급 순모 복지
- 모 혼방복지
- 숙녀 복지

대표 이 태 송 집사

서울특별시 종로구 예지동 220

<전화 261·5786>

태 일 라 사



더 가까이

오 태 용

작년에 읽은 「주의 발자취를 따라」는 실로 충격적인 책이었다. 예수를 따르는 우리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원색적으로 보여주는 그 스토리는 충현교회 신자인 나의 믿음 생활의 கே를 달리 하게 만들었다. 한마디로 도전 받기 이전의 막스웰 목사 일동은 오늘의 우리들과 똑같이 경건하고 모범적인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용감하게 접질을 벗기고 나온 후의 그들은 우리들만 너무도 거리가 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었다. 이후 나는 찬송을 마음 놓고 부를 수 없게 되었다. 눈물이 나와서 입을 열 수가 없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멀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다> 어찌 이런 찬송을 지금까지 목청 높여 불러왔던가. 주를 따라 간다는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한 고난에 즐거이 동참하였던가. 마음이 절리고 양심에 쫓겨서 회개와 결심의 눈물을 흘릴 뿐이다.

해가 바뀌었다. 불신자는 죽을 날이 당겨졌다 할 것이나 신자들은 천국에 한발짝 다가섰다는 생각을 한다. “인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죽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이 자꾸만 실감된다. 전혀 예고 없이 가까운 이들이 세상을 떠난다. 인간의 현재상황이 순서 없이 닥치니 이제부터는 진짜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겠구나 다짐한다. 함부로 입 벌릴 수 없고 생각 없이 행동할 수가 없다.

이제 우리는 모두 한결을 더 가까이 천국문에 다가섰다. 불투명한 80년대에 무슨 일이 있을런지. 그러니 그냥 가는 세월에 실려서 더 가까이 갈 것이 아니라 우리쪽에서 용기를 내어 적극적으로 더 가까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신앙년조의 빈껍데기는 과감히 던져버리고 메시에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행동지표로 삼아 주께 더 가까이 살았으면 좋겠다. 정말 매일 성경을 연구해야지. 순간마다 기도해야지. 전도도 해야 겠구나. 목사님의 설교를 적어놓지만 말고 집에 가서 꼭 복습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생활을 해야 겠다. 80년대로 바뀌었으니 우리의 신앙생활 방식도 바뀌어야 할 것 같다. 그리되면 어떠한 찬송도 거리낌 없이 성량껏 불러 나의 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리라.

* 찬송가 감상 *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310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 찬송은 1980년도를 맞이하여 연초에 실시한 「단기 수련회」의 주제 찬송가였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찬송을 주셨을까? 여기에 역시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그 어느때 보다도 1980년대에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우리 충현교회를 통하여 나타나야 할 때이기 때문이다.

정말 우리는 진흙과 같은 인생들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 주님의 형상을 닮게만 한다면 귀한 그릇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진흙과 같은 날 빛으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부르며 역사적인 '80년대를 힘있게 달려가야 하겠다.

이 찬송은 「폴라드」(Sarah Addison Pollard, 1862-1934)라는 한 여성에 의하여 1902년에 작시 되어 잭슨 「스태빈즈」(George Cole Stebbins, 1846-1945) 박사가 곡을 붙인 것이다.

「폴라드」양은 자신이 “엘리아 3세”라고 주장하는 「도위」(John Alexander Dowie) 목사로부터 당뇨병을 치료받고 한때 선교사가 될 결심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생각과 뜻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 「폴라드」 자신의 뜻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성경을 읽는 가운데 자신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고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복종시켰다. 특히 예레미야 18:1-6까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너무나 감격하여 한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 인간은 진흙에 불과하며 토기장이가 세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았다.

오늘 우리들 자신이 토기장이의 위치에서 오만분손한 팔과 행동을 하는 자가 없는가? 이 찬송을 다시 한번 음미하여 불러 보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라! 그래야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질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냄새나는 인간의 뜻만을 고집하게 될 것이다.

김 하 진 목사 <성경학원·성가부지도>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와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습니다.

I. 도서실 안내

1. 도서열람시간 :

- 1) 주일 : 오전 8 : 30 - 저녁에배 30분전.
- 2) 평일 : 오전 10 : 00 - 오후 6 : 00

2. 도서대출 :

도서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본 교회 교역자 및 주일학교 교사로써 본 도서실에서 발급한 도서대출증을 소지한 자에 한하며 대출 기간 및 대출도서 권수는 아래와 같다.

- 1) 교역자 1회 2책 - 1주간

- 2) 교사 1회 1책 - 1주간

단 도서대출은 폐관 1시간 전까지이며 대출도서의 반납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연체료를 1책 1일당 20원을 지불하여야 한다.

3. 희망도서 구입신청.

교역자 및 주교교사가 희망하는 도서가 본 도서실에 소장되지 않은 도서가 있으면 소정 양식에 의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 (서식-도서실에 있음).

II. 도서대출증 갱신 및 발부

1980년도 도서 대출증을 발급하고 있다. 도서 대출증을 발급 받기를 원하는 교사들은 1979년도 도서 대출증을 가지고 와 갱신하길 바라며 신입교사들은 직접 오시어 도서대출증을 발급 받기를 바란다.

= 분실도서 공고 =

1. 구약히브리어 문법-최의원지음. 2. 조직신학개요-최의원지음. 3. 구약신학논고-김희보지음.
4. 기독교신학개론-벨롭프지음. 5. 기독교교리요약-벨롭프지음. 6. 신약원어-이순한지음. 7. 아리스토텔레스. 8. 요약기독교사. 9. 피난처-코리텐 뭉지음. 10. 문제해결자 예수그리스도-헌터 존지음. 11. 성령론-스트라우스레만지음. 12. 능력충만의 비결-토레이 지음. 13. 세속속의 크리스찬-홍현실지음. 14. 나는 어떻게 그리스찬이되었나-여촌갑삼지음.

* 책소개 *

존 밀튼 그레고리저 이 종 수 역

7 가지 교육법칙

생명의 말씀사간 130페이지 300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가지 명령을 하셨다. 첫째는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전도의 명령이다(행 1 : 8) 구원 받은 성도를 양육하라는 교육의 명령이다. (마 28 : 18-20) 이 명령은 성도된 우리들이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한국교회의 전도활동은 비교적 활발하나 교육활동이 상당히 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혹자는 한국교회에 산부인과는 많으나 소아과는 없다고 한국교회의 병폐를 지적하였다. 이것은 교육의 원리와 교육방법에 대한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1980년도에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사로 임명받은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일환으로 7가지 교육법칙이라는 책을 교육위원회에서 필독도서로 선정하는 것이다.

본서는 1884년에 출판된 책이기는 하지만 교수법의 중요한 원리들에 대해 명확한 분 아니라 쉽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미국의 큰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의 필독도서로 되어 있다.

본서에서 말하는 7가지 법칙을 요약해서 소개한다면 ① 교사는 가르치는 수업 또는 진리 혹은 기술을 자신이 알고 있어야 한다. ② 학생은 수업에 재미를 느끼고 참석해야 한다. ③ 교사와 학생 사이의 전달 매개체인 언어는 서로가 잘 통하는 공통적인 것이어야 한다. ④ 배우고자 하는 교훈은 학생이 이미 알고있는 지식으로 설명이 되어져야 한다. ⑤ 가르침은 올바른 생각을 이 해시키거나 또는 올바른 기술을 익히게 하려고 학생의 머리를 깨우쳐 사용토록 하는 것이다. ⑥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개념이나 진리를 자신의 머리로 이해하는 것 혹은 새로운 기술 혹은 솜씨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⑦ 행한 가르침의 시험과 증명-끝맺음과 집중시키는 과정 -은 가르친 내용 즉 전달한 지식, 모범 및 기술에 대한 복습, 재고, 재인식, 재연 및 적용이다.

이상의 7가지의 법칙을 근거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 80년도에 충현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할전대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할 책이기에 교육위원회 선정 필독도서로 추천한다.

이 승 근 목사 (청년부지도)

생활속의 윤리(2)

〈가정〉

김 하 진 목사

(성가부·성경학원 지도)

* 연재순서 *

- | | |
|-------------------|---------------|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 Ⅱ. 하나님나라 형성 |
|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 사상 | |
| 3. 신약의 윤리관 | 8. 생활속의 윤리 |
| Ⅰ. 신약의 도덕적 이상 | Ⅰ. 결 혼 |
| Ⅱ.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 Ⅱ. 가 정 |
| 4. 인간과 윤리 | Ⅲ. 이 혼 |
| 5. 초대 교회의 윤리적 배경 | 9. 사회속의 윤리 |
|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 Ⅰ. 기독교와 인종문제 |
| 7. 기독교의 도덕적 이상 | Ⅱ. 국제질서·전쟁·평화 |
| Ⅰ. 사랑의 실천 | Ⅲ. 기독교 윤리와 문화 |



1. 기독교 가정론

가정이란 무엇일까? 잘 아는 낱말이면서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잘 모르고 있는 말이 아닐까? 이 가정이란 말을 영어에서는 홈(Home)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처럼 부드럽고 사랑스러우며 또 더 감미로운 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비스마르크」는 말하기를 영어에 부드러운 말이 둘이 있는데, 그 하나가 「Home」이란 말이며 다른 하나가 「Gentleman」이라고 말했다. 사실 그렇다. 독일어의 「das Haus」란 말이나 우리나라의 「집」이란 말이나 기타 다른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말에 비해 표현된 말들이 영어의 「Home」에는 미치지 못하는 말들이다. 「Home」에는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고 그 구성원인 가족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만으로 가정이라 할 수 없다.

가옥은 어디까지나 물질의 범주를 벗어날 수 없고 가족은 육체 이상일 수 없다. 다시 말해서 「Home」이란 정신과 영혼이 승화된 것이지 어떤 물질이나 육체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정」이란 기독교에서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며, 기독교와 동시에 탄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반드시 거룩함과 사랑이 있어야 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찬 행복이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이상적인 「Home」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인도의 불교나 중국의

유교에서는 기독교의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이란 정신의 화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정신의 화합은 영적 동감에서만 오는 것이다. 다른 종교에서는 영혼을 살리거나 개조하는 힘이 없다. 그러므로 진정한 「Home」을 건설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부모의 강요에 의해서 자녀에게 효를 강조하는 곳에는 진정한 기독교적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

사랑이란 외부로부터 구입되어 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닌 충효도덕이 만든 가정은 어떤 예의적인 것, 기계적인 것, 억지로 만든 가정에 불과할 것이다.

진정한 「Home」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서로 교환하며 사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Home」이란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다만 가정에서는 사랑이 일부 소수에게만 국한 된다는 것과 영혼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육체적 사랑이 보태어 진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집」(가정)하면 잠 자는 곳, 식사하는 곳, 즉 하숙비를 내지 않고 침식할 수 있는 하숙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가족」이라고 하면 나와 결혼한 아내나, 낳아 기르는 자녀를 뜻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흔히 행복한 가정이 있다는 말을 들으면 그것은 곧 가옥이 화려하고 가족

이 안락하게 지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가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착각이다. 「가정」이란 그런 곳이 아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민요 「Home sweet Home」을 쓴 「존 하워드 페인」(John Haward Peign)은 이 기독교적 가정을 잘 노래해 주고 있다.

그가 가정에 대해서 잘 노래할 수 있었던 것도 그 자신이 기독교적 사랑을 기초로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이란 사랑과 자유와 신앙이 잘 조화된 아름다운 장소라 하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렇다고 이곳에서는 눈물도, 한숨도, 괴로움도, 고통도 없고, 근심과 걱정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곳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하여 지배되는 곳이며 이 사랑 때문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지상의 작은 낙원이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기도하는 생활이 있고 성경을 읽으며 찬송하는 생활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Home」이 언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그것은 지금부터 4 천년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사라와 결혼했을 때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이때부터 구약에서 「Home」을 보게 되었는데 유태인의 생활 전체에서 찾을 수 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유태인의 역사는 국가나 국민의 역사가 아니요 바로 「Home」의 역사라고 말했다. 그런데 이 유태인의 「Home」은 나사렛 마을의 요셉의 집에 가장 뚜렷이 나타났던 것이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난한 가정의 일원으로 태어났고, 성장했던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Home」은 한층 더 승화되었고 굳어졌으며, 그의 교훈(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기록하고 즐거운 가정이 생기게 된 것이다.

사도 바울과 함께 세계 전도에 앞장섰던 디모데도 기독교적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었고 성 어거스틴(Augustine)도 역시 그러한 가정의 어머니 밑에서 자라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이란 반드시 신앙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이 있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으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찬 행복된 곳이라 하겠다.

2. 가정에 관한 윤리학적 이해

사람은 누구나 자기 부모를 가지고 있다. 물론 구체적인 관계에 들어가 보면 법적으로 부모 아닌 사람이 부모가 되는 경우도 있겠고, 불륜의 관계로 빚어진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이러한 사례에 대한 해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윤리가 말하는 부모와 자녀간의 도덕적 행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는 것이다.

1) 자녀가 부모에 대한 도덕적 행위

무엇보다도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복종하면서 배워야 한다. 이것은 노예나 종의 의미에서가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하여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엡 6 : 1 - 3 참조) 물론 부모를 공경하는데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다.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자유로운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하여 자녀들은 자신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부모를 통해서 배우게 된다.

2) 부모가 자녀에 대한 도덕적 행위

이에 대하여 성경은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는지 잘 말해 주고 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제로 양육하라” (엡 6 : 4)

그러면 “주의 교양과 훈제”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이것은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을 말한다. 다시 말해 부모는 마땅히 그 자녀의 잃어버린 인간성 회복을 위해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잃어버린 인간성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교만이 있다. 이렇게 잃어버린 인간성에서 나타난 교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① 자기의 자리가 안정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또 자기의 자리가 안정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안정된 자리를 얻기 위하여 자기 실존의 유한함을 망각하고 권력을 무한히 추구하는 교만이 있다.

② 사람은 자기 지식이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지적인 교만이 있다.

③ 또한 자기 자신이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그 가장된 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삼는 도덕적 교만이 있다.

④ 그리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자기 외에 따라 판단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영적 교만이 있다.

그러므로 부모는 이와같이 변질된 자녀의 인간성 회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만이 의롭고 하나님만이 사람의 행위의 판단이 되며, 따라서 사람은 스스로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을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 생활에서 하나님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잃어버린 인간성은 이기심으로도 나타난다. 이것은 자기의 자리를 안정시키거나 안정할 수 있는 힘을 무한히 추구하려는 힘의 교만에서 오는 것이라 하겠다.

어쨌든 부모는 자녀가 사회에서 행동 원리를 갖고 사회를 결속시키는 도덕 행위를 하도록 양육해야 한다. 가정이 봉사의 과업을 가지고 사회적 안정과 생존을 위하고 동시에 각 가족의 결속을 위해 실천할 요구를 성도된 부모는 관찰하고 윤리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가정은 작은 교회를 잃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하고, 남편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희생하듯(엡 5:22 이하참조)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고 다스릴 것이며,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 또한 부모는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도록 양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 새해의 기원 *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유 재 일 강도사

(산업전도 교육부지도)

차디찬 찬 바람이 귀를 스치며 지나 간다. 조금만 더 가면 보금자리가 보이리라. 기대감을 가지고 피곤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얼마큼 왔나보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아직도 군밤장수가 알밤을 굽고 있다. 무척 외롭고 추워 보인다. 신호등을 바라보는 눈이 그리로 가 버리고 그 광경을 유심히 보고 있다. 남루한 수건을 이마에 동여맨 군밤장수 아주머니가 알밤 한알을 집어 들더니 단숨에 잘로 상처를 낸다. 그리고는 타오르는 연탄불에 올려 놓는다. 조금 있으니 툭툭! 탁탁! 횡! 요란한 신음이 계속된다. 열마가 저났다. 검은 껍질이 벗겨지고 누렇게 익은 알밤이 눈에 보인다.

다시 집으로 걸음을 옮기며 생각해 본다. 툭툭 탁탁탁! 알밤의 신음소리를! 알밤이 사람의 구미를 높이기 위해서는 껍질이 죽지 않으면, 곧 우리들의 자아가 죽지 않는다면

결코 있을 수 없음을 생각하며 많은 교훈을 받는다.

그렇다. 인생은 누구인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살아간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자식은 부모를, 이렇게 피차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자신의 기쁨일 것이다. 그런데 기쁘게 해 줄 대상이 없는 자는 참으로 외로운 과부나 고아들일 것이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불쌍한가? 그렇다면 우리 인생 모두는 하나님의 즐거움을 위해 살아가는 자임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편, 아내, 부모, 자식,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는 삶을 나는 군밤에게서 삶을 배우게 된다. 그것은 곧 자신이 죽는 길일 것이다.

우리는 교회생활 가운데 가끔 자신이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 말인가? 자아가 죽어지고 신비한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군밤알이 된다면 얼마나 복된 삶이란 말인가?

사도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전 15:31)고 하지 않았던가? 새해에는 한알의 알밤처럼 못된 자아를 성령의 숯불에 구어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군밤이 되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는 한해로 살고 싶다.

은혜로운 만남

황 승 은

(청년부회원)

밤에 변장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맡았던 니고데모를 사모합니다. 결국 자원하는 심령을 얻기까지 자라난 그의 믿음을 부러워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니고데모의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으며 랍비라 칭함을 받았던 니고데모-그는 부족함없어 보이는 속인이었는지 모릅니다. 교양과 사색을 적당히 갖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가 드디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 되었음을 봅니다. 세상의 무엇으로도 채워지지 않고 물질이나 사람, 명예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런 갈급함을 그가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번복을 하고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 밤 그는 더 이상 견디어 낼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렸을 것입니다. 그 밤 그는 자신의 나약함과 공허를 털어 버리고도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졌던 지위와 지식은 오히려 그의 자유로운 행동을 속박했습니다. 진실한 내면의 욕구를 자연스럽게 뚫어 내는 자유조차 상실케 했습니다.

그밤 예수님과 그의 대화를 하나하나 생각해 봅니다. 그의 대화는 지해로 넘쳐 있었습니까? 힘이 있

었습니까? 그가 세상에서 얻어 낸 품위가 흐르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질문들은 너무도 유치했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랍비라 부른 그를 보십니까? 많은 평범한 사람 속으로 예수님을 교묘히 끌어 내리고자 했던 그의 비열함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니고데모의 모습에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인간 전부의 냄새가 담겨 있습니다. 오랜 습관에 젖어서 스스로도 자신의 진실한 가치와 욕구조차 모르는 그 모습 말입니다. 주위에 의해 만들어 진 자신의 추할 수 밖에 없는 허상을 움켜 쥐고 있는 그 대단한 기갈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성경 중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 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3:3)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느니라" (요3:5)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4-15)

짧막한 대화 속에서 니고데모는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말씀 속에 넘치는 권능과 소망 속에서 넘치는 은혜 받음을 알았을지요?

그 밤 이후의 니고데모를 살펴 봅니다.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앞서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그는 불같은 신앙의 결단을 곧 갖지 못했습니다. 그의 믿음은 천천히 자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서히 변화 되어 무리없이 화려한 의복을 벗게 되기까지 포기하지 않은 그의 신앙을 봅니다. 한번 받은 주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었던 그를 봅니다. 신앙의 결단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걸렸지만 그 이후 자원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장례까지도 맡은 그의 강인해 진 인품을 느끼게 됩니다.

서서히 끊임없이 움직여서 결국 영원의 꽃대를 움켜 쥔 니고데모처럼 지금 우리도 그 대열에 참가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 그 꽃대에 도달하도록 가장 귀한 피로써 우리를 구원 해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해 쉬임없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아름다운 힘이 우리의 혼을 향해 격려를 보낼 때, 더 이상 그것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 가자" (히 10:22)



내가 생각하는

기독교인 상

한 정 배

(청년부회원)

내가 군대에 있을때 느낀것 이지만 훈련을 받는 도중 믿지 않는 동료들은 거든히 견디어 내는 훈련을 질질 끌려가며 받으면서 체력이 약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아주 어린 시절에는 동리 어른들로 골목대장이란 별명도 들었는데 왜 이럴까? 하며 생각해 보았다. 영적인 면에만 치우쳐 육체를 돌아보지 않는데 그 원인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보았다.

우리 민족은 불교와 유교 사상의 바탕 위에 성립된 나라로서 그런 사상이 기독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부인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농후하여 기도를 해도 응답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고 무슨 일을 앞에 놓고 예언기도 받아서 실행 하기를 원하며 목적이 뚜렷하지 못한 금식기도, 철야기도 등등이 많이 있어서 현실의 생활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심지어는 금식기도를 장일동안 드린 후에 몸이 전보다 쇠약 해졌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몸이 더 약해 졌다고 말하는 것을 꺼려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면 경건 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바른 대답은 기도 응답을 받게 위해서 이 만큼의 몸을 희생 했노라고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날 오순절 주의 영향이 지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금식기도 철야기도를 주장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물론 어려운 일이 앞에 부딪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할 수 없을때는 당연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그것을 통해서 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현실 생활에서 더 은혜를 받을 수 있다. 형제들 간의 대화 가운데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고 세수를 하는 도중 의문을 갖고 있던 성경말씀이 해석 되여지고 옆집에서 싸우는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장례식장에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터득하게 되며 세계 정세의 움직임을 통해 주님의 재림의 시기를 짐작하게 되고 국가의 되여지는 상황을 통해 주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게 된다.

현실의 환경과 질서는 중요한 것이다. 만일 현실을 부정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일게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지나치게 세상에 집착하게 되면 세속화가 되는 것이요, 지나치게 영적인 면에 치우치면 선비주의자가 되는 것일 것이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진 현실의 질서를 성실히 수행하는 크리스찬이 이상적이 아닐까?

얼굴은 창백하고 허약한 몸으로 신비스런 은혜만을 찾아야 하고 현실 생활의 질서를 내동댕이 치는 도피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 그런 형태의 기독교인 상이 아니다.

얼굴은 건강미가 넘치고 활기가 있으며 생활가운데 매사에 적극적이고 믿지않는 사람과 씨름을 해도 이길 수 있고 그 입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이 확실히 전파되고 그 마음 속에는 주님의 사랑이 가득차서 슬픔을 당한 형제를 보고 진심으로 함께 울어주며 할 수 있는대로 평화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며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건전한 꿈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 상이 아닐까 생각한다.

또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이교도들도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 신이 천자를 창조했고 죄를 범하면 벌을 받는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들이 믿는 신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관념적이고 가상적인 하나님인 것이다.

일전에 신문에서 이란의 종교 지도자「호메니」는 하루에 몇 시간씩 하나님에게 묵상 기도를 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자기중심적인 하나님이다.

오늘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 능력을 찾아 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처는 하지만 그 허실은 많은 것 같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는 신자였다. 그들만큼 경건하게 생활하려고 했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회칠한 무덤들아 독사의 자식들아”하고 혹독하게 꾸짖으셨다. 그들속에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심정과 온유하고 겸손하고 이웃을 위하여 물과 피를 쏟을 만한 사랑이 없었다.

오늘날 신자라 자처 하면서 교회안에서 높아 질려고 하는 사람, 남이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을 위한 독선적인 이기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조그만 잘못을 발견하면 한치의 관용도 없이 몰아 부쳐 매장 시키는 사람, 정녕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일까? 내

가 잘못된 생각 일지도 모르지만 아무튼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 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 : 22-23)」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 2 : 12)」고 하였을 것이다.

* 새해의 기원 *

성령님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한 해가

한 정 미

(초등부교사)

한 해를 뒤로 새해의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앞에서 진지한 삶을 살았는가를 회고하여 보면서 또한 이 한해야말로 나의 전 삶을 지배하시며 그 삶속에 있어서 가장 위대함을 보여주실 주님이 되심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됨을 먼저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러기에 이 한 해를 통하여 나의 뜻이 성취되기를 바라지 않음은 오직 내 속에 성령님만이 역사하시어 나를 통하여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바라 볼 수 있도록 나의 온 마음과 몸을 비울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해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가끔 우리들의 삶의 순간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을 저버릴 때가 많은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어떠한 사건이나 만남을 대할 때마다 미움보다는 사랑을 편견보다는 관용을 또한 용서와 진실을 주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앞에서 얼마만큼 내 자신을 진지함으로 드렸는가 하는데 기인된 것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앞에서 부끄러움없는 진실함과 믿음의 순결속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만이 - 또한 그 진실함속에서 가장 깨끗하게 살았을 때만이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항상 기도함으로 낙심치 않는 자가 될 것이며 이것으로 그분의 뜻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로 인해서 내 자신의 생활을 항상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여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구하는 마음과 함께 주님으로 하여금 장애에 모든 것을 선택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실수 있도록 나의 전체를 맡겨 더욱 더 그 분과 깊은 영적 교제속에서 참된 기쁨을 간직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마음속 깊이 기원하는 바이다.

선교월보

선교월보

해외 복음 선교회가 제공하는

인도네시아-서 만 수 선교사

* 기도 제목 *

- ① 비자 연장수속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잘되어 계속 선교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합심기도하자.
- ② 정글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얻은 결신자들이 주안에서 잘 자라도록
- ③ 금년에도 더욱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을 붙들어서 동남아 선교전략에 큰 공헌을 할수 있도록.

홍콩-홍종만 선교사

- ① 12월 1 일 제 3 회 한인바자회를 홍콩 에딘버러 광장에서 개최.
- ② 12월 2 일 중국인 영업택 목사님을 방문하여 중국선교 정책에 대하여 의논함.
- ③ 12월 3 일 중국의 한인교우로부터 편지 2통 받음.
- ④ 12월 6 일 내방한 침례교 김장환목사와 중국선교협력에 대하여 상의함
- ⑤ 12월 7 일 한인교회 어린이 교육용으로 비데오 티비셋트를 구입(한화 약 70만원)
- ⑥ 12월10일 중국 한국교인으로 부터 편지 두통을 받음.
- ⑦ 12월11일 바자회 수익금(한화 6,242,778원) 을 홍콩 공익회에 전달함.
- ⑧ 12월12일 김응삼 선교사를 방문하여 중국선교협력에 관하여 협의함.
- ⑨ 12월15일 영업택목사께서 중국 광둥성 광주를 방문하여 실정을 파악하고 가정모임의 집회를 인도하고 돌아옴
- ⑩ 12월18일 영업택목사를 방문하여 그 여행실정을 듣고 중국선교 목적을 위하여 영어방송(성경교재용)을 위한 선교기금 한화 84만원을 전달(홍콩한인교회 교우의 헌금)
- ⑪ 12월18일 중국의 한국인 불신자로 부터 편지 두통을 받음
- ⑫ 12월19, 20일 중국의 한국교인으로 부터 5 통의

편지 받음

- ⑬ 12월24, 25일 성탄축하행사(축하예배, 새벽송, 성탄예배)
- ⑭ 12월28일 영어강의 방송을 통한 선교방송 교재 보조비로 30만원을 중국선교 기관에 보냄
- ⑮ 중국어성경 보내는데 비용 2 만원을 지급함
- ⑯ 기타 매주 2 회씩 구룡 지하철 공사 예배인도와, 격주로 국제결혼 가정부인 성경공부인도와, 구룡에이프 지역 주일회 성경공부지도와, 매주 토요일에 한인학원지도함.

* 기도 제목 *

- ① 금년에도 더욱 홍종만 선교사님 내외분께 능력과 권능을 주옵소서
- ② 중국본토 복음전파가 더욱 원활해질 수 있도록 복음의 문 넓게 여소서
- ③ 내민족 북한 선교도 홍콩선교거점을 통하여 열리게 하옵소서

애굽-이준교, 김신숙 선교사

- ① 애굽과 아프리카 선교의 문이 넓게 열리도록 복음의 문을 여소서
- ② 김신숙 선교사와 이준교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에게 배움의 좋은 길이 열리도록 복을 주옵소서.

서독-육호기, 박용삼 선교사

- ① 육호기 선교사님을 통하여 유럽에 참 복음신앙이 활발히 일어나도록 복을 주옵소서
- ② 박용삼 선교사님에게 지혜충명 주셔서 연구하는 학문을 잘할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일본-유병세 선교사

- ① 금년에도 유병세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영육의 복을 주셔서 의료 선교에 많은 결실을 얻게 하옵소서

아르헨티나-백성룡 선교사

- ① 시무하시는 교회가 더욱 부흥하여 남미 선교거점이 되도록 복을 주소서
- ② 백성룡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더욱 능력과 은혜를 주사 말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호주-김태현 선교사

- ① 김태현 선교사님 내외분에게 더욱 은총과 권능을 주사 선교에 성공을 주옵소서
- ② 호주 선교가 성공하여 오세아니아주를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인도-엘리아 겔간 선교사

- ① 엘리아겔간 선교사에게 말씀, 능력, 성령 충만 주셔서 불교, 힌두교에 있는 영혼을 구원케 하옵소서
- ② 인도에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리도록 은총 주옵소서

선교본부-해외복음선교회

백인빈장로(북한 선교회 이사), 김영휘전도사(선교부지도)동남아 선교전략수립차 동남아 여행을 떠나다

기간: 1980. 1. 7 - 3. 7 (약 2개월간)

방문장소: 홍콩, 싱가포르, 일본.

목적 ① 공산권선교 및 북한선교업무협의

② 동남아 선교지현황 파악 및 선교전략연구

③ 해외선교 단체 방문 및 유대강화

④ 선교후보자들을 위한 훈련방안 협의

2. 1980년도 해외복음선교회 실행위원회 조직 명단

회 장: 최석주 장로

부회장: 이동균 장로

김봉재 권사

서 기: 조선근 장로

회 계: 신현상 장로, 김남조 집사

회 원: 위영환, 최석주, 한경일, 조선근, 신현상, 강준용, 김의철, 고병욱, 정하우, 이동균, 김남조, 남선우, 신동수, 김봉재, 안윤진, 박순옥, 이영주, 유순녀, 문명애, 박영엽, 유감순.

각지역담당: ① 인도네시아-신현상, 김봉재 ② 홍콩-고병욱, 박순옥, ③ 중동-한경일, 박영엽, ④ 유럽-조선근, 유순녀, ⑤ 남미-김의철, 문명애, ⑥ 호주-남선우, 안윤진, ⑦ 일본-강준용, 이영주 ⑧ 인도-정하우, 유감순.



〈주일학교선교부의 개강예배〉

3. 선교주일학교 학생모집.

자 격: ① 본교회 중등부이상 신자로서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거나 후원 하기를 원하는자

② 타교회인이라도 위와 같은 뜻을 가진자.

개강예배: 1980. 1. 18. 오후 7 시

① 장소: 충현교회 유년부실

② 강사: 김창인 목사.

1 학기 강의과목: ① 기독교 선교역사

② 교회와 선교

③ 선교지역 연구

강의시간:

① 중·고-매주토 오후 6:30-8:30

② 대·청년매주금오후 7:00-9:00

③ 장년-매주 오후 1:40-3:40

접수 및 문의: ① 충현교회 주일학교 선교부

② 해외복음선교회 사무실

Tel 267-9937, 9738.

4. 선교회원 모집

기도와 물질로 도우실 선교회원을 모집합니다.

문의처: 해외복음선교회 사무실

전화: 267-9937, 9738.

5. 선교현금을 내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① 미국에서 위재생(위영환 장로님의 자제)

② 미국에서 최봉이

※ 대단히 감사합니다.

12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광희①구역	윤영기	중구 광희동 243 8/1
수유리 구역	최정숙	도봉구 수유리 168-5
우이②구역	성명희	도봉구 수유동 440-22 9/1
상계 구역	조영미	도봉구 상계동 1051-3 24/6
송인②구역	김선덕	종로구 송인동 20-18 11/4
수유리 구역	송정배	도봉구 쌍문동 414-104 9/5
창동 구역	김종규	도봉구 쌍문동 306-12 16/6

• 2 지구

전농 구역	박익규	동대문구 답십리 3동 475-62 2/4
-------	-----	------------------------

• 3 지구

자양 구역	서순희	성동구 자양동 산54-10
도곡①구역	김용석	강남구 도곡동
도곡②구역	김금순	강남구 삼성동 성보APT B동 505호
강남①구역	김정태	강남구 반포동 202-9 10/8

• 4 지구

필동②구역	최정균	중구 필동 3가 62 10/5
반포②구역	김자음	강남구 반포 한신 4차 205동 205호
반포②구역	김은상	강남구 잠원동 한신 4차 211동 207호
시흥 구역	노재용	영등포구 시동동 1가 465-8 26/3
용문 구역	이말용	용산구 용문동 281-26 21/1
여의②구역	이경희	영등포구 여의도 대교 APT 3동 503호
후암 구역	박영순	용산구 후암동 394-9 12/3
시흥 구역	임종길	영등포구 독산 2동 209-32
신림①구역	이신우	영등포구 신림 1동 452-7 12/3
인천①구역	박수현	중구 충무로 3가 21-13 1/4

• 5 지구

서대①구역	김현철	서대문구 냉천동 금화 APT 1동 604호
화곡③구역	문명수	강서구 신월동 214-44 1동
문재 구역	송애자	영등포구 문래동 4가 21-13 1/4
화곡①구역	유순금	강서구 화곡 3동 193-4 32/4
중부 구역	황미희	중구 예관동 70-8 신도사무기
을지①구역	송재일	중구 을지로 3가 230-1
을지①구역	이길상	중구 산림동 207-2 대림 APT 761호
종로 구역	변철석	종로구 소격동 165

새로 나오신 교우는 장년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매주일 오전 11시 50분에 동관 3층 장년새신자부실에서 모입니다.

* 축하합니다 (12월중 결혼)

- 김상윤군(강순실씨 아들)과 김혜숙양(김성애집사 딸) 12월 1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김한희군(답십리구역) 12월 1일 오후 2시 여주산복 복지회관에서
- 홍원표군(김순애권사 아들) 3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홍현표군(최정순권사 아들)과 박기봉양(삼양구역) 3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이길자양(유만녀집사 딸) 7일 오후 1시 고려예식장에서
- 김경환군(청년부 회원)과 정숙자양(유치부 교사) 11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정영수군(대학부 교사) 15일 12시 기독교 대화관에서
- 조관식군(조영문집사 아들)과 최명옥양(청년부 회원) 15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정경희양(서옥권사 딸) 15일 오후 3시 본교회당에서
- 김주홍군과 김려화양(김태숙집사 딸) 15일 오전 11시 춘천 세종호텔에서
- 주성희양(김영자집사 딸) 14일 오후 2시 본교회당에서
- 이태영군(주교 교사)과 정금수양(곽정옥권사 딸) 18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구역 소식 *

- 최광준군(정옥규씨 아들) 27일 오후 1시 본교회당에서
- 이명진군(휘경구역)과 이명자양(잠실 4구역) 26일 오후 2시 L. C. I에서
- 김은조군(삼양 3구역) 27일 12시 본교회당에서
- 김광철군(이영남집사 아들) 28일 오후 2시 신문회관에서

* 위로 드립니다(12월중 별세)

- 정말업권사(창동구역) 27일 별세 29일 장례
- 김호락(조정원집사 시부) 30일 별세 1일 장례
- 서무갑권사(청담 ① 구역) 12일 별세 14일 장례
- 정말업권사(창동구역) 27일 별세 29일 장례
- 김인배씨(73세) (이정남권사 부군) 13일 별세 15일 장례

- 김복남권사(김차생장로 모친) 16일 별세 20일 장례
- 장창훈씨(김복선집사 부군) 19일 별세 21일 장례
- 조응천장로(조현명장로 부친) 20일 별세 22일 장례

1980년도 구역을 담당할 실무임역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역권찰회 회장/김 재 창목사

서기/박치민 부서기/문홍구

○ 각 지역 담당

	원 팀		부 팀	간 사
	목 사	전도사		
1 지구	김재창	김용선	유재일	황현철
2 지구	허이성	최순복	이승근	김종구
3 지구	김종택	구명신	남성호	이창호
4 지구	정상우	강봉선	김석원	김종주
5 지구	김하진	이두환	김영희	강모영

* 권찰수첩 *

협력 구역의 사명

금년도 구역 총수는 작년보다 50개 구역이 늘어 219개 구역이며 시무장로를 중심으로 편성된 협력 구역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80년도의 우리 교회의 사명 수행에 더욱 크게 공헌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1.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복음 사역을 협조하는 것이다.

큰 교회일수록 크고 많은 일들이 있고 거기에 전체 교인들의 협조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본의 아니게 소외당하거나 스스로 소외된 채 교회 일에 무관심하고 비협조적인 교인들도 적지 않게 있을 수가 있다. 그러므로 구역 단위 협조 체계가 확립되면 아무리 크고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을찌라도 성공적으로 감당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고 확신하는 것이다.

2. 성도 상호간의 친교를 위한 모임이 되어야 한다.

사람마다 친교를 통한 위로 받기를 소원하는

김 재 창목사(부목사, 구역권찰회장)

것이다. 구역마다 구역 집회를 통하여 구역내의 성도간의 친교와 위로가 더욱 두터워져야 할 것이며 연초에 담당장로의 주관아래 구역권찰 친교 위로회가 바로만 된다면 구역 발전과 그리고 교회 부흥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서 얻어지는 위로와 힘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부흥의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기쁜 일 슬픈 일에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 질 것이다.

3. 철야 기도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다.

비상하고 중대한 80년도를 맞이하면서 우리와 우리 교회의 사명은 더욱 크게 되었고 이를 위하여 기도가 더 절실했던 것이다. 작년 8월부터 시작된 구역단위 철야 기도회가 많은 문제점이 있기는 하나 점차 내실을 기하면서 성공적인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구역원 모두가 이 기도의 대열에 참여하여 능력을 얻고 지혜를 얻어 마침내 역사적 사명수행에 크게 이바지할 것을 믿는다.

시편에서 줍는

주간지 만나

시65: 1-4

죄인의 기도를 들으심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사람의 소원을 들어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자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의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의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범죄하므로 죄인이 된 사람의 기도까지 들어 주시는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만일 의인만이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꿈에도 하나님을 찾아도 못 보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너그러운 분이어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어도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회개자의 기도를 다 들어 주십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거나 문제가 아니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며 축복까지 안겨 주십니다.

돌아온 탕자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 더 큰 영광을 부어 주십니다.

시65: 5-8

우주의 주권자에게 감사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니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 할 주께서 의를 좇아 엄위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은 땅의 모든 끝에 거하는 백성들과 멀고 넓은 바다를 건너는 자들의 참 의지할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지혜와 권능으로

우주를 창조하시었고 우주를 사랑과 지혜로 섭리하시고 바다의 물결을 섭리하시며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바벨론의 벨사살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고 처분하시는 하나님, 그 분은 바로 역사의 열쇠를 손에 쥐시고 계십니다.

인간의 실력은 같은 사람끼리 차이가 있을 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발견하며 경건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왕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과 저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아침처럼 흥하게 하시고 저녁처럼 망하게 하신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았다면 나는 벌써 악한자의 손에 망하였을 것이다. 지금 내가 왕위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역사까지 주장하시므로 바로 살려서 나에게 성공과 승리를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시 65: 9-12

풍년을 주심을 감사함

『주의 은택으로 연사에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이 거의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름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땅에 물을 주어 윤택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왕의 시대에는 큰 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므로 큰 흉년이 들어서 밭은 단비로 부드럽고 윤택하여졌고 무르익은 곡식이 황금 물결을 치고 있었읍니다. 주님의 은택으로 잘 자란 곡식이 관을 쓴 것 같이 보기에 좋고 하나님의 축복의 길에는 기름이 떨어지며 곡식만이 아니라 들과 초장의 풀들도 기름지게 잘 자라서 양과 소와 말의 양식으로 넉넉합니다.

이처럼 사람과 짐승이 기름진 것을 먹으며 근심없이 즐겁게 지나게 되었으니 이는 오로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왕은 감격에 넘치는 감사 찬송을 드렸습니다.

당회 산하 각 지회 임역원

1980년도 1년동안 교회의 중추가 되어 끌고 나갈 당회 산하 및 제직회의 임역원이 확정, 또 1년 동안 수고하게 되었다. 특히 금년에는 교회조직이 2국(사무국, 출판국) 2위원(감사위원, 인사위원) 7위원회(예배위원회, 전도위원회, 심방위원회, 재정위원회, 건축위원회, 자산관리위원회)로 전면 개편됨에 따라 각 위원, 임역원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 지며 보다 새롭고 효율적인 많은 일들이 기대된

1. 당 회

당회장 / 김 창 인

서 기 / 송순일

부서기 / 이태규

회원 / 한명옥 황기성 위영환 조현명 김한홍 윤종순
김기정 전희문 윤종성 임광식 최석주 이동규 오승률
황창룡 박창수 이응선 윤용규 홍중섭 김중석 한경일
정석태 최성림 김영삼 이원철 윤명식 김의철 조선근
김은호 오태희 김영개 김방진 강순용 마성락 신영대
김차생 신현상 고병욱 우기전 김경칠 손동운 노광현

1) 예배위원회

위원장 / 김창인

위 원 / 한영철 김하진 송순일 김기정 임광식 이동규

2) 전도위원회

위원장 / 김 중 택

위 원 / 최석주 김은호 이동규 오태희 강순용 신현상
김영삼 손동운 김영희 남성호 유재일 이양우 김석원
박치민 김천재 장주석 서동석 손경수 이창업 신평근
장병기 김경생 이옥녀 명정옥

3) 교육위원회

위원장 / 정상우

위원 / 이승근 김하진 윤형철 박창수 이응선 윤용규
김중석 윤명식 김의철 김차생 우기전 정하우

연구위원 / 김하진 윤형철 이승근 김석원 남성호 김
영희

자문위원 / 김득룡 윤영탁 정정숙 박성수

4) 심방위원회

위원장 / 김재창

위원 / 정상우 김하진 이성준 허 준 김한홍 오승률
홍중섭 신영대 김경칠 마성락 이득관 최순복 강봉선
구명신 김용선 김연이 김은숙 김원선 박치민 문홍구
양정백

5) 재정위원회

위원장 / 윤종성

위원 / 이응선 한경일 우기전 박치민 정봉조 오정현
김영남 문옥순

6) 건축위원회

위원장 / 김기정

위원 / 위영환 윤종성 임광식 한경일 노광현 이창업
오진국 이병학 이옥녀 안윤진 오희명 정선화 원도화
이해숙

7) 자산관리위원회

위원장 / 황기성

위원 / 윤종순 이동규 황창룡 정석태 고병욱

8) 감사위원

수석위원 / 윤종순

위원 / 황기성 오태희 김영개 설희상

9) 인사위원

수석위원 / 김창인

위원 / 송순일 한명옥 위영환 김기정 최석주 교육위
원회 서기,

10) 사무국

국 장 / 최석주

국 원 / 조현명 이태규

11) 출판국

국 장 / 조현명

국원 / 조선근 김차생 김하진 윤형철 손경수 오태용
김종주 이형수

2. 제직회

회 장 / 김창인

서 기 / 오진국

부서기 / 송기홍 최대원 최상규

회 계 / 최성림

부회계 / 심 일 조 : 송환창 서일영 정재모 전남일 윤
봉준 김구현 김종구 박병은

회 정 / 노문환 김연석

집 계 / 김정선 오석부 김순애 장기옥 김
춘희

구제부장 / 김방진 봉사부장 / 이희원 미화부장 /

박옥식 서무부장 / 위영환 영천부장 / 이원철 예
전부장 / 전희문

초대 우성원장로

공로장로 추대식

본교회 초대장로로 교회설립시부터 함께 수고하여 온 우성원장로의 공로장로 추대식이 지난 12월 30일 저녁에 배시 있었다.

우성원장로는 1954년 5월 9일 초대장로 3명(최재성, 강지순, 우성원)중 1명으로 26년간 교회의 이곳 저곳에서 중책을 맡고 충성하시었다.

이날 공로장로 추대식에서 교회는 그동안의 공로를 치하하면서 공로장로 추대패를 드리고 금메달(한량중) 1개를 기념품으로 드리기도 했다. 우성원장로는 강지순, 김천준장로에 이어 세번째 공로장로로 추대되었다.



(공로장로 추대식)

특별 구역권찰회 모여

지난 1월 15일(화) 1980년도 구역권찰회 특별회로 모였다. 금년도 219구역의 장로, 권사, 구역장, 구역권찰들이 모여 신년도의 구역권찰회의 신년 운영 계획을 듣고 신년도의 구역권찰회 임역원들과 인사하는 시간들을 가졌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구역심방 개근, 정근자에 대한 시상과 지난해 구역담당요원 및 금년도 담당요원에 대해 기념품을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새 교역자 부임

당회는 새로운 심방 목사로 한빛교회에서 시무하시던 허준목사를 모시기로 결정했고 또한 신년부터 주일 학교의 지도교역자, 부지도교역자를 각각 임명했다. 최봉호전도사(총신연구원 3년, 전 신림동 교회에서 시무)를 초등부 지도 교역자로, 김장근전도사(총신대 4년, 전 산업전도부 교사)를 유년부 부지도로, 유극남전도사(총신연구원 3년, 전 봉천교회에서 시무)를 선교부 부지도교역자로, 정금숙전도사(총신여교역자연수원 1년, 전 장년새신자부 교사)를 장년새신자부 부지도로 각각 임명했다.

엘리아 겔간 전도사

인도로 파송

교회는 엘리아 겔간 전도사를 인도선교사로 지난 1월 4일 파송 출국했다. 엘리아 겔간전도사는 이미 작년 11월 20일 본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린바 있었다. 엘리아 겔간전도사는 인도인으로 우리나라에 와서 아세아연합신학 연구원에서 수학하고 있던 중 우리 교회에서 인도로 선교사 파송을 하게 되었다. 이날 공항에는 전도 위원회 위원장 김종택목사를 비롯해 선교회 실행위원 등 많은 교우들이 나왔다.



(엘리아겔간전도사파송)

단기 수련회 마쳐

1월 3~12일까지

1980년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한 해의 삶과 충성을 다짐하면서 모였던 단기수련회가 지난 12일(토) 교사·성가대수련회를 마지막으로 모두 마쳤다.

1월 3일 장로·교역자수련회로 막을 올린 금번 수련회는 열 9일간 모여 각 분야별로 모였다. 1월 7일부터 9일까지 부흥회는 연일 본당을 꽉 매운 가을때모여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앞에 서 결심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다. 금번 수련회는 「혼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잠 4:13)의 말씀을 표어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새 310장)을 주제 찬송으로 하였다.



(단기수련회시 부흥회)

직장 성경 통신과 운영

산업사회 복음화를 위해 애쓰는 산업전도회(회장/오택희장로)에서는 직장인을 위한 성경통신과를 운영하게 된다. 이 통신과는 산업전도회 교육부가 주관하게 되며 이를 위해 이미 6권의 교재를 산업전도교육부의 유재일 강도사가 지난해 연말에 이미 집필하여 나온 바있다.

충현교우들의 직장에서 성경통신과 강좌를 개설하기 원하는 사람은 전도위원회사무실(260. 3407)로 문의하셔면 된다.

김창배장로 소천(召天)

우리 교회의 시무 장로로 수고하시던 김창배장로가 지난 1월 10일 아침 뇌일혈로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1월 10일 오전 교회뜰에서 장례식을 했다. 고 김창배장로는 1967년 4월 2일 장로장립을 받고 지금까지 교육위원회위원, 감사위원, 전도위원회위원, 주일학교 대학부, 초등부 부장 등으로 충성해 오셨고 최근에는 동산관계일을 전담해 오셨다. 유족으로는 사모 정송화집사와 2남 1여가 있다.

각 지회 총회마쳐

여전도회는 1·2부로 분리

각 지회는 지난 해 연말 총회를 갖고 사업보고와 새 임역원을 선출, 새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산업전도회는 지난 12월 2일에, 권사회와 남전도회는 12월 9일, 여전도회는 12월 16일 각각 총회를 개최했다. 특히 여전도회는 회원의 증가와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신년부터 만 46세 이상의 회원을 I부로, 만 45세 이하를 II부로 구분 분리하기로 하고 각각 총회를 개최하였다.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남전도회 / 회장 : 이동규
부회장 : 이창업
- 제 1 여전도회 / 회장 : 이옥녀
부회장 : 전인화
- 제 2 여전도회 / 회장 : 명정옥
부회장 : 황정숙
- 산업전도회 / 회장 : 오태희
부회장 : 최상규 전순자
- 권사회 / 회장 : 양정백
부회장 : 신군자 김상권

새가정부

제1기수료식-6 가정 나와

주일학교 새가정부는 제 1기 수료식을 지난 12월 30일 오후 4시 새가정부실에서 가졌다. 이날 수료식에는 오태용집사 가정을 비롯한 6가정이 수료하였고 이기성, 박정아회원 가정이 모범상을 수상하였다.

지난해 1월 7일에 한국 최초의 새가정부로 출발한 새가정부는 약혼한 남녀 및 결혼 3년 이내의 가정을 대상으로 1년과정의 교육과정을 편성하여 교육하고 있다.

매주일 오후 4시 유모자실에서 집회를 갖는 새가정부의 1980년도 1, 2월의 강의 계획은 다음과 같다.

- 2/3 / 구약의 가정(모세) 윤영택목사
- 2/10 / 가정과 교육- 가정에서의 음악지도.....이귀자교수
- 2/17 / 건강관리-가정에서의 산모건강.....조인제집사
- 2/24 / 건강관리-가정에서의 안과건강.....(조정강사)



(새가정부 수료식)

각 종 통계

1979. 12. 2 (매월첫주기준)

	구분		남	여	계
	주 일 낮				
예배		I 부	180	326	506
		II 부	328	734	1,062
		III 부	499	1,055	1,554
		IV 부	171	434	605
		주 일 저녁	257	415	672
		삼 일 저녁	123	238	361
주일학교		어린이새신자부	17	28	45
		영아부	130	109	239
		유치부	143	129	272
		유년부	176	177	353
		초등부	194	188	383
		장년새신자부	28	58	86
		중등부	125	146	271
		고등부	128	115	243
		대학부	56	71	127
		청년부	80	92	172
		장년부	21	314	335
		노년부	33	101	134
		산업교육부	17	83	100
		선교부	22	39	61
		새가정부	12	15	27
	계	2,740	4,868	7,608	

주교 계절학교(겨울) 시작

— 1 월 21 일 고등부를 선두로 —

1980년 주교각부 계절학교가 지난 1월21일부터 24일까지 실시된 (강사 김진택 목사) 고등부 동기수양회를 틀 선두로 시작되었다.

주교 각부의 실시계획은 아래 별표와 같다.

1980년 주교각부 계절학교(겨울) 실시계획(개요)

구분	부별	1. 어새부	2. 영아부	3. 유치부	4. 유년부	5. 초등부	6. 중등부	7. 고등부	8. 대학부	9. 청년부	10. 산교부	11. 선교부	12. 제
1. 회 수		제17회	제10회	제11회	제17회	제17회	제10회	제10회	제11회		제3회	제1회	
2. 주 제					아 래 별 표 참 조								
3. 주제성구		100 : 8	마5 : 3-8	히2:11상반	히12:2상	히12:2상	갈6 : 14	딤후3:14	요8 : 32		빌1 : 27	골10:14-15	
4. 주제찬송		590			309 장	327 장	159 장	619 장			309 장	621 장	
5. 기 간		1.28-1.31	2.28-2.29	2.25. 2.27	1.28-1.31	1.28-1.31	2.26-2.29	1.21-2.24	2.19-2.22	4월로연기	2.14-2.16	1.22-1.25	
6. 장 소		본교회	본교회	본교회	본교회	본교회	본교회	본교회	본교회	본교회	기도원	정선·기원	
7. 학 생		90	300	330	390	376	320	300	200		65	8	2,379
8. 교 사		30	45	44	60	59	35	40	15		15	2	345
9. 보조교사				6		10	5						21
10. 외래강사				1		2	1		1		1		6
11. 내부강사		2		1	22	1			1		2		9
12. 제		122	345	382	452	448	361	340	217		81	10	2,760

* 주교각부 1980년 계절학교(겨울) 주제

- 1) 어새부 - 기쁨으로 여호와의 사랑을 받자.
- 2) 영아부 - 참복은 어떤 것일까?
- 3) 유치부 - 예수님을 바라보자.
- 4) 유년부 - 예수님을 바라보자.
- 5) 초등부 - 예수님을 바라보자.

- 6) 중등부 -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 7) 고등부 - 굳게 잡아라 믿음.
- 8) 대학부 - 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 9) 산교부 -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 10) 선교부 -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자.

유치부 2차년도 공과 발행키로

현재 주일학교 유치부 교육과정은 2차년도로 되어 있으나 총화교육부에서 발행된 유치부공과는 단권으로 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우리교회 주일학교 유치부에서는 2차년도 교육과정 공과책을 자체에서 교안을 작성 프린트하여 사용하여 오고 있었다.

그런데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총회 교육부에서 유치부 2차년도 공과가 발행될 전망이 없으

므로 우리교회에서 발행하기로 하였는데 앞으로 수년동안 사용하여 온 공과내용을 교회 교육연구위원회에서 감수를 하고 교육위원회의 검토를 받은 후 당회의 승인을 얻는대로 즉시 공과발행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과 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이미 교육위원회의 새해 예산가운데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헌신예배 회수 일부조정

새해부터 여전도회가 1부와 2부로 나뉘고 또 각각 헌신예배를 드리게 됨에 따라 주교각부를 비롯한 헌신예배 일정과 회수가 일부 재조정되었다.

따라서 주교각부는 새로 조정된 일정에 따라 헌신예배를 계획하고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여 줄 것을 교육위원회와 예배위원회에서는 부탁하고 있다.

각부별 헌신예배회수 비교표

부 명	79년	80년 원안	80년 조정안
1. 중 등 부	3	3	2
2. 고 등 부	3	3	2
3. 대 학 부	3	3	2
4. 청 년 부	3	3	2
5. 산 교 부	2	2	2
6. 주 교 교 사	2	3	2
7. 해외복음선교회	4	4	3
8. 산업전도회	2	2	2
9. 남 전 도 회	4	4	3
10. 여전도회 1부	4	4	3
11. 여전도회 2부			
계	30회	31회	27회

1980년 각기관헌신예배일정표

월	주	기 관 명
1	2 세 4 세	대 학 부 해외복음선교회
2	2 세 4 세	남 전 도 회 여전도회-1부
3	2 세 4 세	여전도회-2부 중 등 부
4	1 세 2 세 4 세	주 교 교 사 고 등 부 산업전도교육부
5	2 세 4 세	청 년 부 해외복음선교회
6	2 세 4 세	대 학 부 산 업 전 도 회
7	2 세 4 세	남 전 도 회 여전도회-1부
8	2 세 4 세	여전도회-2부 해외복음선교회
9	1 세 2 세 4 세	주 교 교 사 중 등 부 고 등 부
10	2 세 4 세	산 업 선 교 회 청 년 부
11	2 세 4 세	산업전도교육부 남 전 도 회
12	2 세 4 세	여전도회-1부 여전도회-2부

주일학교 일부 교육내용 및 시간조정

교육위원회는 새해부터 주일학교 일부의 교육내용과 교육시간을 조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청년부를 1부와 2부로 분리·청년부 학생들의 특성에 맞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다양화 하였다는데 유의하게 되며 각부의 교육내용과 일부 변경된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장년새신자부

① 학습반

- 시 간 / 오전 11시30분
- 장 소 / 동관 3층
- 교육내용 / 믿음의 대상·시작·성장·교회생활·헌신의 생활·승리의 생활
- 대 상 / 본교회 등록교인으로 학습을 받지 않은 사람 (15세 이상)

● 교육기간 / 6개월

② 학습반통신교육(신설)

교육내용은 학습반과 꼭 같으며 우리교회 등록교인으로서 사정상 매주 학습반 수업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으로 교육기간은 6개월이며 수료자는 학습반 수료자와 꼭 같이 학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세례반(신설)

- 시 간 / 오전 11시30분
- 장 소 / 유년부실
- 교육내용 / 세례문답을 위한 준비내용
- 대 상 / 본교회에 등록된 학습교인
- 교육기간 / 6개월

2. 청년부

① 청년 1부 강의

- 시 간 / 오후 3시 ~ 3시50분
- 장 소 / 동관 2층 (청년부실)
- 강의내용 / 성경개론·소요리

문답·공판복음·모세 5경

- 대 상 / 청년부 학생중 23세이하, 대졸미만, 신앙경력 3년 이하로 신앙의 기초를 확고하게 확립하기 원하는 사람

● 기 간 / 3년

② 청년 2부 강의

- 시 간 / 오후 3시 ~ 3시50분
- 장 소 / 동관 3층
- 강의내용 / 교회사·교의신학·실천 및 교양·성경 공부

- 대 상 / 청년부 학생중 24세이상, 신앙경력 4년 이상으로 보다 수준 높은 신앙의 계를 확립하기 원하는 사람.

● 기 간 / 3년

- ※ 청년 1, 2부합동강의 / 오후 2시 ~ 2시50분까지 동관 2층 (청년부실)에서 실시되며 토요일 6시부터도 강의가 있습니다.

3. 새가정부

- 시 간 / 12시
- 장 소 / 서별관 (유년부실 옆 구 여전도사님 사택)
- 교육내용 / 성경강해·성경의 가정들·가정과교육·가족관계·가정관리
- 대 상 / 총현교회 등록교인으로 약혼한 남녀 및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기의 미혼 남녀
- 기 간 / 1년

1월의 행사

- 5 일 재정 위원회
- 3 - 12일 단기 수련회
- 3 - 4 일 장로 및 교역자 수련회
- 4 일 직원 수련회
- 7 - 9 일 부 흥 회
- 10일 제직 및 권찰수련회
- 11 - 12일 교사 성가부 수련회
- 13일 공동의회, 산업전도회 월례회
- 11일 철야 기도회
- 13일 남전도회, 권사회, 대학부 헌신예배
- 15일 특별 권찰회
- 20일 여전도회월례회, 재정위원회, 선교회 실행위원회
- 21일 교육 위원회 월례회
- 23일 권사철야 기도회
- 27일 구역 권찰회, 전도위원회, 산업전도회월례회
- 28일 건축 위원회
- 29일 정기당회

편집하고 나서

* ... 1980년도 새해를 맞으며 우리 모두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한다. 최근에 더욱 복잡해 지는 국내외정세가 우리를 불안하게 한 가운데 막을 올린 1980년이 우리 앞에 있다. 이처럼 격동하는 시대속에 우리의 좌표를 어디에다 두고 어느 목표를 향해 갈 것인가는 무척 중요한 일이다. 방향감각도 잡기 어려운 이러한 시대를 맞으며 당회장 김창인목사님의 「1980년도 목회방향」이란 제목으로 연초 「교역자, 장로수련회」에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구체적인 내용들의 말씀은 없었지만 1980년대를 살아 가는데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와 자세를 생각해 볼 수 있어 무척 다행스런 일이다. 이제는 세계

속의 중현교회를 심는 일에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모두가 힘써야 할 것이다.

* ... 김회보목사님의 「지도자론」을 많은 페이지를 할애하여 정리하였다. 현대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점들을 지적해 준 내용에서 서로가 자신을 돌이켜 보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이다. 어느때 보다 크리스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이 세대에 크리스찬 지도자의 사명 또한 중차대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 ... 새로운 모습이 없는 월간중현이 다소 실망을 주겠지만 보다 내용에 충실하려는 것이 편집위원회의 금년도 방침이다. 많은 조언과 격려를 주시는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출판국이 신설됨에 따라 좀 더 새로운 업무가 추가될 것 같다.

* 1980년 월간중현 조직 *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편집위원 / 김하진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손경수 오태용 김종중

이형수

월 간 중 현

1 월호

제 7 권 제 1 호

통권 제73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80년 1월 27일 발행

발행인/김 창 인
편집인/조 현 명
주 간/윤 형 철
편집부장/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60-3407 · 3408

1980년도

중현교회 당회원



당회장 / 김창인



서기 / 송순일



부서기 / 이태규



한명욱



황기성



위영환



조현명



김한흠



윤종순



김기정



전희문



윤종성



임광식



최석주



이동규



오승률



황장룡



박창수



이응선



윤용규



홍중섭



김종석



한경일



정석태



최성림



김영삼



이원철



윤명식



김의철



조선근



김은호



오태희



김영개



김방진



강순용



마성락



신영대



김차생



신현상



고병욱



우기전



김경철



손동운



노광현